

홍천신문

건강한 노후 · 활기찬 노후 · 일하는 노후 · 행복한 노후

2023년 2월 (제105호)

발행처 홍천군노인복지관
발행인 현운재
창간일 2014년 5월
주소 강원도 홍천군·읍 태학여내길 80-3
전화 033-430-8700 FAX 033-430-8790
홈페이지 www.hcknowin.org/

복지관 소식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소원을 말해봐’ 진행



홍천군노인복지관(관장 현운재)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복지관 이용회원과 직원이 한마음이 돼 재생자원 활용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헌 냄비나 고철 등을 팔아 모은 수익금 1,035,400원으로 홍천군 지역의 독거어르신을 선정, 1월 5일과 6일 양일 간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

홀몸 어르신 11명의 필요물품은 사례관리사업 담당자가 대상자 가정방문 상담 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 물품을 접수받아 전기압력밥

솥 4개, 전자레인지 2개, 전기주전자 2개, 동절기 이불 1채, 생필품 키트 2Box로 준비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소원을 말해봐’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복지관 회원과 직원들이 이웃을 보살피고,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진행됐다. 물품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올해는 유난히 날이 춥고 눈도 많이 와 마음이 쓸쓸했는데 전기압력밥솥으로 따스한 밥을 지을 수 있게 돼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수타사신도회

6개 읍·면 소외계층에 난방유 배달

수타사(주지 화광스님)와 수타사 신도회(회장 오승훈)는 지난 12월 27일 홍천관내 읍면 저소득 소외 어르신 12가구를 추천받아 겨울철 긴급 난방유 3,007리터(약 460만원)를 맞춤형 지원했다.

오승훈 신도회장은 “올 겨울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저소득 홀몸 어르신 가구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수타사와 신도회는 난방유 지원활동을 확대했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타사와 신도회는 지난해 무궁화장학금

1,500만원을 기탁했으며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 20여 군대를 접수리 봉사활동으로 약 3,000만원 상당의 자비 나눔을 실천했다.



<구독자 시>

화을 이일배

계묘년 새해에는

새해의 붉은 태양
차가운 동해 등을 떠밀고
동심 가볍게 떠오르나니,
전쟁의 포화와 어둠속
이글거리는 지옥불처럼
꺼지지 않는 지표면,
희망이란 거짓 이름표 달고
퇴직하는 젊은이들
시린 어깨 위에도 새 태양
따뜻하게 빛을 주리라.

계묘년 새해에는
총명하고 다산하는
검은 토끼처럼
귀 쫓긋 세우고,
거북이 감언이설에 빠져
유일한 간성이 잘 지켜 내자.
달리기 경주에서도
자만하여 낮잠 자지 말고
저 너머 펼쳐이는 꾀대를 향해
경충경충 달려 가자구나.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설맞이 사랑의 쌀 전달

지난 1월 17일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본부장 황인목) 후원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설맞이 사랑의 쌀(10kg 22포)을 전달했다.



CONTENTS



02 - 지역축제

04 - 지역 맛기행

05 - 지역탐방, 인생칼럼

07 - 설 명절맞이

03 - 베이비붐 세대

04 - 기자칼럼

06 - 미래금융, 게이트볼

08 - 사라져가는 풍경들



후원계좌 : 국민은행 313501-04-161305 농협 301-0084-3440-11 우체국 200238-01-006584

*보내주신 후원금(물품)은 기부금공제법 제 25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월정사복지재단
홍천군노인복지관

홍천 지역 축제에 바란다



◇홍천강 뽕뽕축제

흥겹고 신나는 잔치, 특산물 값싸고 풍성해야

우리 지역의 문화가 축제가 되고, 축제가 다시 우리 지역 문화가 되는 축제!

이제 축제는 지역의 음식, 자연경관, 지역의 명소, 인물, 그리고 춤과 음악, 영화와 같은 예술을 주제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등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농촌 현실은 장년과 노년층이 대부분으로 지역 축제가 펼쳐져도 축제장은 종전과 다른 역동적인 모습을 찾기 힘들고 시가행진이나 시끄러운 음향이 들릴 때만 잠시 눈 돌릴 뿐이다.

축제에 관한 관심 결여는 결국 행사의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현실 국면을 타개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첫째, 홍천군민의 관심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는 환경을 바꾸고 축제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혼란스러운 축제의 면모를 먼저 바꾸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예를 든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더 많이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축제의 내용을 집중시키는 '중심 광장'이 있어야 한다.

백화점이나 유통기관의 행사엔 늘 중심 광장이 있고 중심 광장에서 유익한 정보로 내가 찾고 해야 할 일을 발견할 수 있다.

길거리를 배회하듯 걸어가며 구경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축제의 집중도를 높이고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장광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

광장에서 손님들을 위한 행사 및 추첨 이벤트로 손님과 손님이 정보를 교환하며 오랜 시간을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축제는 주민들의 잔치이다. 잔치는 내가 먼저 즐거워야 한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즐기는 것이다. 잔치를 열어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즐거움을 나누고 축제에 참여한 군민 모두가 즐겁게 어깨를 들썩여야 잔치한 보람이 나는 것이다.

그래야 다른 지역 사람들도 잔치를 구경하러 와서 즐거워하며 축제장에 오래 머무르며 향토 맛도 즐기고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것 아닌가? 내 잔치가 성공적이면 경제적 가치도 자연스럽게 따르기 마련이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이번 홍천에 색다르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겨울 축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겨울 축제로 활성화가 가장 잘 돼 있는 지역은 누가 뭐래도 '화천 산천어 축제'다.

지방자치의 성공 사례로 꾸준히 언급되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이다.

주최 측과 군민 그리고 군이 하나가 되어 2003년에 1회가 열린 이래 축제하는 동안 100만 명, 많게는 15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도 방문할 정도로 유명하니 참으로 대단한 축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서 축제할 수 있는 11번째 열리는 '홍천강 뽕뽕 축제'다.

2023년 1월 13일(금)~24일(화), 12일간 "홍천 슈퍼 인삼 송어를 잡아라!"라는 테마로 송어나 시, 송어 맨손 잡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농한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홍천강 뽕뽕 축제는 타 유사 축제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6년근 인삼이 배합된 사료를 먹인 인삼 송어가 축제에 활용된다.

인삼 송어는 일반송어에 비해 조직이 좀 더 치밀해지고 수율이 증가했고 향산화 활성 성분 분석에서는 일반송어에 비해 향산화 능력이 향상하고 식감과 감칠맛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잡아먹는 것보다 슈퍼 인삼 송어를 잡겠다는 기대감과 손맛을 느낄 수 있으니 가슴이 부푼다.

지역 축제는 지역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기술적으로 외부인들을 참여시켜 함께하는 축제가 있지만 어떤 축제든지 흥겹고 신나는 잔치여야 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특산물을 값싸고 풍성하게 공급해서 소비자도 지역 상인도 즐거워야 한다.

따라서 우리 홍천군도 홍천군만의 특색있는 지역 축제를 많이 개발하여 홍천군민의 관심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축제의 질을 높여서 지역의 상품을 홍보하거나 상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 우리 지역 상품의 가치를 인정받고 명맥을 이어가는 지역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김명국 기자(kookcore@naver.com)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세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중추라고 자부하는 58년 개띠 생이 올해 공식적인 노인층으로 진입한다. 베이비붐 세대에는 한 해 90만 명에 달하는 아기가 출생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 올해까지 우리나라 인구의 약 7%에 달하는 350만 명이 공식적으로 노인이 된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5년간 지속이 되고, 거의 비슷한 추세로 그 후 약 10년간 노인층이 증가한다. 따라서 향후 15년간 엄청난 기세로 노인층이 불어난다.

베이비붐 세대가 직면한 현실

은퇴한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심각하게 당면한 현실이 있다.

첫째, 재정. 둘째, 건강. 셋째, 단절.

첫째, 재정.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그래도 재산이 있는 편이다. 웬만하면 자기 집이 있다. 그것도 대부분 도시권에. 도시의 집값이 얼마나 뛰었는가! 집 없는 설움이 가장 크다고 하면서 기를 쓰고 돈을 모아 집을 샀다. 그리고 사고팔고 하면서 집을 늘렸다. 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아파트는 더 했다. 그런데 은퇴한 지금 거의 모든 재산이 그 집에 묻혀 있다. 재산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것이다.

둘째, 건강. 아직은 그런대로 건강한 편이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 증세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고 다른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아주 높다. 끔끔거리며 겨우 살아갈 날이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른다.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닌 게 된다.

셋째, 단절. 베이비붐 세대는 정말 직장에 충실하면서 죽자 사자 일에만 몰두했다. 그만큼 보상도 받았다. 그러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인간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다. 은퇴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나마 일로 엮어졌던 관계마저 끊어졌다.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됐다. 이웃은 말할 것도 없다.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들도 별로 만나지 않았다. 관계의 단절이 왔고 고립되었고 외로운 신세가 되었다.

정답은 없다. 다만 문제풀이 중이다

위에서 말한 베이비붐 세대에 당면한 현실을 해결할 정답은 아직 없는 것 같다. 그 정답을 찾는 중이다. 정답을 못 찾을 수도 있다. 다만 정

답에 가까운 차선책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흘러가는 세월을 지켜만 본다면 문제는 감당할 수 없게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절규에 가까운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질지도 모른다.

이미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지났다.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다행히 관련 연구들과 실천들이 진행되고 있다. 해결책은 중앙정부나 지자체만의 몫이 아니다. 학계와 일반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과제이다.

베이비부머 '내 나이가 어때서?'

T씨(65세)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고민거리가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이다. 그는 육이오(62세까지 일하면 오직)라는 치욕적인 비아냥거림을 들으면서도 얼굴에 철판 깔고 쓸개 빼놓고 다니면서 버틴 끝에 3년 전에 퇴직했다.

부동산 경기가 한참 좋을 때, 용자를 받아 더 큰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경기가 곤두박질 쳤다. 1~2억 빠지는 것은 보통이었다. 그렇다고 덜렁 팔 수도 없었다. 용자를 안고 있자니 치솟은 이자가 감당이 되지 않는다. 퇴직금으로 용자를 갚자니 수중에 쓸 돈이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딸아이가 시집을 가겠다고 한다. 가겠다고 반갑기는 한데 빈손으로 보낼 수 없어서 고민이다. 집값을 낮춰 팔아서라도 해결해 보려는데 아내가 반대다. 애들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밥 먹기도 빠듯한 국민연금으로는 아파트 관리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각종 경조사비 등을 감당할 재간이 없다.

퇴직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허덕이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기만 하다. 도대체 언제까지 일을



노인은 일자리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 아파트 경비초소를 지키는 베이비부머

해야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평생을 뼈빠지게 일해 왔는데 이제 다시 죽는 날까지 일해야 한단 말인가!

T씨는 자신이 일할 만한 자리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결국 나이가 걸린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 팔팔하게 현장에서 일하던 나인데 즐지에 뒷방 늙은이로 취급되는 것이다. 나 잘 나가던 사람이야. 그래봤자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다.

T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였다. 아파트 경비! 그것도 지인이 억지로 끼워 넣어줘서 얻은 일자리다. 내가 관창은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보다 훨씬 못한 아파트의 경비라니....

내 나이가 어때서? 평생 열심히 일하면서 차곡차곡 알차게 먹은 나이인데 마치 허투루 먹은 나이 취급을 하다니....

베이비붐 세대의 발길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가 약 700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14%에 달한다. 이들이 이제 60대가 되었다. 시한폭탄이면서 썩크홀이다. 이들의 발길이 어디로 어떻게 향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삶의 지형이 바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구성원 모두가 그 활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

성문영 기자(sunggoodnews@naver.com)



자신이 많은 부자도 월 소득이 최소 생활비에 훨씬 못미친다.

아름다운 정원과 맛이 어우러진 샘터골

한여름 샘터골을 찾아갔을 때 잘 꾸며진 정원을 보고 주인의 손님을 대하는 마음을 보고왔는데 신년 흥천의 맛집인 “샘터골”을 다시 찾았다.

지수길 사장(사진)은 결혼리 7남매중 4째로 태어나 서울로 갔다가 15년전 다시 귀향하여 그동안 해온 식당 경험을 활용하여 청국장 식당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당



시 결혼리는 주변에 건물이 거의 없이 군부대만 있는 논바닥이었는데 형제 자매들의 만류에도 고향에 와서 식당을 하고 싶은 마음에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접하자 사채를 얻어 건물을 완공하게 되었다.

막상 청국장 식당을 시작하자 너무 외지이고 홍보가 안돼 개업 시점은 점심 시간에 하루 한 팀, 두 팀 들어 올 때가 비일비재하였다.

지수길 사장은 한 달 6백여만원의 사채 이자 감당이 안 되자 점심이 끝나면 검정고무신에 앞치마를 두르고 바구니에 명함과 수건을 넣어 흥천 시내를 발이 부르틀 정도로 명함을 돌리고 다니기 시작하였다. 땀과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지 어느 날부터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에어컨 놓을 돈이 없어 안쪽 방에만 에어컨을 놓고 손님을 그 방에만 모시고 장사를 하자 어느 날 오신 손님이 “내가 손님 많이 모시고 올

테니까 돈 벌어서 에어컨 놓으라”면서 손님들을 모시고 오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부터 입소문을 듣고 손님들이 늘어나고 안정을 찾고 있던 중 호사다마인지 11년 전 남편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시자 4남매를 키우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식당을 다시 시작하였고, 방사선과에 다니던 큰딸이 식당일을 도와주다가 엄마의 일을 덜어 주려 호텔 조리학과에 편입하여 졸업 후 주방일을 도맡아 주어 한시름 덜게 되었다.

가족들의 지원으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어느 날 걸지를 못해 병원에 가보니 연골이 다 닳아 두다리 모두 연골 수술을 받는 일까지 있을 정도로 식당을 위해서라면 온몸을 바쳐 일한 결과였다.

지금은 점심 시간에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흥천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지수길 사장은 오늘을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처음 식당 개업할 때 온갖 양념, 숟가락, 젓가락까지 나중에 돈벌면 값으라고 지원해 주신 식당 거래처 사장님, 물심양면 식당 일을 도와주신 두촌 고모님과 식당을 찾아주신 모든 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4명의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것이 너무나 고맙고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이 살고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얼마전 막내딸이 보내준 손편지에 “나의 롤모델은 엄마”라는 글을 써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며

편지를 보여 주었다.

지금은 다소 여유가 생겨 식당 옆 농사짓던 땅에 꽃과 나무를 하나 둘씩 심어 공원같은 화원을 만들어 식사를 하신 손님들이 꽃과 나무를 보고 정원을 거닐며 휴식을 취하는 것을 보고 좀 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것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식당에 왔을 때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밝고 긍정적인 성품이 오늘날 샘터골을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하며, 힘들 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손님들께 가족처럼 변함없이 받은 사랑만큼 돌려주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지금은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방법 중 하나로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에게 작은 봉사라도 나눔을 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서행연 기자(bonbon2202@naver.com)



기자칼럼



배워서 남 주자

**어르신 평생학습 중요성 점점 부각
배운 내용 지역사회 환원하면 시너지
청년세대도 어르신과의 동참 나서야**

인구 구조의 변화, 디지털 변혁, 기후위기, 가치관의 다양화 등 급변하는 사회 속 주도적인 미래를 영위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초 고령화 사회 기준인 20%를 훌쩍 넘어 27.9%를 기록하고 있는 흥천군의 경우 어르신의 사회적 활동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

전체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어르신

들이 경제적, 비경제적으로 사회에 기여를 하지 않고서는 그 지역사회가 역동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우선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뒷방 늙은이’라 폄하하기보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쉽게 접근 가능한 방법은 평생교육이다. 이제 어르신들도 평생교육을 통해 다중의 세대들과 함께 사회활동을 경험해야 한다.

현재 강원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은 어르신들이 배운 것은 타인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설계한 ‘행복한 나이 들 평생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르신에게 학습문화 기회 제공으로 향후 사회적 활동으로 연결되기 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이다.

또한 지역 곳곳의 복지관, 도서관 등에서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어르신들의 활발한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춤, 노래, 서예, 그림 등도 물론 훌륭하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 축제나 자원봉사 등과 연계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사회의 적극적 구성원으로 활동 하더라도 주변에서 이들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어르신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평생교육진흥원의 노인 바로알기 또는 노인 이해하기 관련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스스로 사회의 흐름을 읽도록 하는 인식개선과 함께 청장년들이 고령자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하도록 돕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노인세대도 청년세대도 자신감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평생교육이 절실하다.

이복여 기자 (boy1145@hanmail.net)

지역탐방

팔봉산

팔봉산의 새해맞이

지난 1월 중순,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 소재한 팔봉산에도 하얗게 눈서리가 내렸다. 홍천군은 우리나라 한반도의 중심, 그곳은 대한민국의 긴 허리에 위치한 백두대간의 지맥(地脈)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팔봉산은 홍천 팔경(八景)으로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 홍천 팔봉산은 홍천강 남쪽으로는 연안(沿岸)을 따라서 여덟 개의 봉우리가 길고 넓게 뻗어있다. 우리나라의 명산(名山)중 수많은 악산(惡山)에 비하면 낮고 낮은 산세를 자랑하고 있으며 각종 기이한 암석이 여기저기에 자리하고 있어서 팔봉산 관광객은 팔봉산 자락을 산행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한다. 큰 바위는 암석이고, 작은 바위는 자갈인데 그렇게 크고 작은 바위로 이루어진 암산. 암산이 바로 팔봉산 자락이다. 산행을 하는데 홍천팔경이 명산인데 산세가 완만해서 험한 산은 아니었지만 이리저리 몸과 머리를 기울여 보다보니까 산세의 시작과 그 끝을 감히 알 만하다.

강원도 홍천군 팔봉산 산자락에서도 새해를 알리는 소리가 가득하다.



푸르름과 녹음(綠陰)이 가득했던 지난 해 여름에도 이곳을 찾아왔지만, 그 때에는 산행을 하고 있는 내 바로 옆에서 우는 산새와 들짐승의 소리가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들의 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아니다. 산새의 소리가 사라졌다. 그 자취를 감추었다. 2월 중하순 무렵에야 찾아오는 삼한사온(三寒四溫)의 날이 아니다 하더라도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다 풀어졌다를 여러 번 반복한다. 그러한 날씨가 이상하다는 것을 산새와 동물들은 미리 감지라도 한 듯이 발자국조차 찾기 힘들다. 날이 추워지자 산새와 들짐승은 어디론가 온데

간데없이 숨어버렸고 나 또한 그 뒤를 찾아 하얀 눈으로 가득한 산에 나의 발자국을 남겼다. 팔봉산 자락 마을 어귀에 자리 잡고 있는 산 중턱, 눈 몇 마지기쯤 되는 넓은 터에 연륜이 지긋한 어른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한다. 마을의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세배를 올린다. 정성스럽게 예를 갖추고 조상을 대하는 웃어른의 몸과 마음에서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연륜이 묻어 나온다.

깊은 산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마을의 여기저기를 다닌다면 혼인이라도 한 모양으로 알고 그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겠다지만 백발노인이 하얗고 검은 단색 저고리를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괴상망측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곳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풍경은 단순하다. 귀하게 대접한 떡국 한 그릇 얻어먹고 내려오는 팔봉산 언저리에서 눈이 개인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른다.

다가오는 올해 2023년, 팔봉산에서 만사 운수대통을 꿈꿔본다.

안태수 기자(tae-su@hanmail.net)

인생칼럼



석도익 소설가

그야말로 음지의 설이 되어오다가, 민속명절을 행정으로 규제할 수 없어 1998년부터 설을 부활시켰다.

설은 조상을 숭배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어른을 존경하며 아이들을 사랑하고 고향을 찾는 명절로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날이라 설이 가까워지면 종갓집에서는 바빠진다.

목은 해를 보낸다는 선달그림에 친척들이 모여 남자들은 떡을 치고, 향을 쬐고 밥을 까고, 여인들은 떡 빚고 다과 만들고 만두를 빚는데 만두소에는 꿩고기를 다져 넣는데 꿩이 없으면 닭고기를 넣기도 하여 이를 두고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유래되기도 했으며, 선달그

면 덕담과 함께 다과나 음식을 내놓기 때문에 굶주리던 배가 설날은 하루 종일 가득해 있다.

정초에는 지계에 쌀을 뜨는 조리를 가득하고 “복조리 사러”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1년 동안 사용할 수량만큼 사서 방 한쪽 구석이나 대청 한 귀퉁이에 걸어놓고 하나씩 사용하면 복이 많이 들어온다는 민간신앙 같아 지진하여 사고, 빈집에도 적당한 개수로 그냥 던져 놓고 갔다가 다음에 와서 받아가기도 하는데, 복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산죽이나 버드나무로 만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때만이라도 돈을 벌게 해야 한다는 불문율이라 복조리만은 가격을 묻

부의 악귀는 들어오지 못하게 목화씨에 고추를 태워 매운 연기가 나게 하고 체를 문 앞에 걸어 놓았고, 신발은 방에 들여 놓던가 얹어 놓아 귀신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여 액운을 방제했으며, 마을에 서낭제 등을 지낸다. 또한 악동들이나 여인들도 남장이나 여장을 하든가 귀신모양도 하여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하고 삼삼오오 때 지어 마을 큰집들을 방문하면 음식이나 다과를 준비하였다 준다. 해괴한 복장과 행동에 온 마을이 웃음꽃이 피는데, 동서양의 풍습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할로윈축제도 매년 10월 말, 주로 미국에서 기피한 복장과 분장으로 즐기는 축제로 성인 대축일 전날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돌아온다고 여기는 켈트 문화에서 유래했다. 이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쫓기 위해 기피한 분장을 하고 즐기며, 어린이들은 유령이나 마녀로 분장하고 ‘잭오랜턴’이라는 이름의 호박등을 켜놓은 집에 찾아가 사탕을 받는 풍습이 있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이터원에서 할로윈축제를 즐기려고 모이다 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습이 많은데도 외국의 낯선 풍습에 현혹되는 세대가 모두를 우울하게 한다. 이 또한 잘살기 위한 새마을운동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이어오지 못한 문화부분이지만, 전세대가 살아온 삶과 이야기들을 후세대들에게 제대로 이어주지 못한 과오가 더 클 것이다.

아름다운 세시풍습(歲時風習)

뭍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된다하며, 이야기로 밤을 새기도 한다.

날이 새기 시작하면 아이들까지 세수하고 제례 복을, 아이들은 기다리던 설빔을 입고 성찬으로 차려 놓은 제상 앞에 남자들은 제관이 되어 조상께 새해절을 드린다.

차례가 끝나고 음복 후 대식구가 함께 아침식사를 하고나면, 집안의 어른순서대로 세배를 드린다. 형제자매간에도 위아래가러 세배를 하는데 이때 어른들은 돈을 준비하였다가 덕담과 함께 내리는 세뱃돈은 새해에 꿈과 같은 것이다.

이어서 선산에 성묘를 다녀와서는 마을 어른들 집을 찾아다니며 세배를 드리

지도 않고 형편에 따라 주고 싶은 대로 흡족하게 지불한다.

대보름 또한 큰 명절이다. 열나흘 날부터 달떡을 썰어 떡국 끓이고 오곡밥을 짓고 나물을 삶아 찬을 만들어 이웃과 서로 나누니 온 마을이 풍성하며, 대보름날은 식구 수대로 싸리나무나 옷감인 삼베의 껌질을 깎 나무로 화를 만들어 놓았다가 달이 떠오르면 햇불을 밝히고 달맞이를 하며 소원을 빌었고 아이들은 햇불전쟁놀이나 쥐불놀이를 하며 온 동네를 누빈다.

이어지는 열엿새 날은 귀신달래는 날이다. 집안에 가족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터주귀신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외

구한말 갑오경장 개혁의 하나로 1896년부터 양력을 공신력으로 사용하였지만 음력이 관습으로 굳어져 양력사용이 미진했던 근거로 고종 42년 11월 11일 양력 1번 기사 1905년 대한 광무(光武) 9년 변이중과 변경운에게 높은 벼슬을 추증하고 시호를 주도록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우리나라 민속명절은 모두 음력이다. 새해 첫날부터 설날 정월대보름 단오 추석 등의 명절이 음력이고 그 외 24절기도 음력이다. 음력절기에 따라 농사짓고 고기잡이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양력과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일제강점기 양력을 사용 하도록 하고 설을 못 쇠게 하였으나 항일정신에 더 강해졌으며, 군부정권도 1962년 1월 1일 음력설과 양력설로 구분되었던 설을 절약정책으로 폐지하여 양력설로 일원화하고, 음력에는 떡방아 문을 닫게 하는 등 강력하게 규제하였으나 민족의 설은

해방 이후의 금융 자본

해방이 되면서 일제의 종속 하에 있던 금융과 자본의 열쇠는 이제 한국인들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 가장 시급한 일은 중앙은행의 건립이었는데 그 역할을 하던 조선은행이 폐지되고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이 출범하게 되었다. 하지만 6·25로 북한군에 떨어진 한국은행은 북한군의 화폐교란 우려가 대두되었다. 그런 이유로 부산으로 옮겨간 한국은행 임시본부는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초대 총재는 구용서(1950~1951)였고 현재 27대 총재는 이창용(2022~)이다.

한국은 해방이 되면서 막대한 건국 자금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20억 달러가 넘는 미국의 원조를 받았다. 원조 기관으로는 GARIOA(미군 점령지구 구호대책위원회), ECA(미국 경제협조처), ICA(국제협력처) 등이었다.

하지만 6·25로 폐허가 된 한국은 모든 생산 시설이 파괴되어 이를 재건하는데 막대한 화폐량을 증가시켜 악성 인플레이션이 누적되었다. 원조 기관들로부터 들어온 원조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집중되었다. 1955년부터는 원조 기구는 ICA로 통합되고 보다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전후 재건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요와 물자의 부족은 여전했으나 확대된 원조 도입으로 마침내 1956년부터 물가 상승이 억제되기 시작하여 1958년부

터는 물가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장기간에 걸친 대외 원조는 한국 경제에 괄목할만한 발전상을 보여 정전 이후로 국민 총생산이 연평균 6%를 유지하였고 그 중 2차 산업의 성장률은 무려 14.5%나 되었다.



그러나 원조를 기반으로 발전하게 된 성장의 과실은 국민들 골고루에게 돌아가지 않고 부의 편중을 초래하였다.

증권시장 상황은 어떠했을까. 일제 강점기 미두 거래로 명성을 떨쳤던 '조선증권취인소'는 폐지되었고 해방 이후 사적 모임이라 할 수 있는 '증권구락부'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 1호 증권사 대한증권(現 교보증권)이 탄생했다. 아이러니하게 6·25전쟁은 오히려 증권 산업의 호황을 불러왔다. '지가증권' (이승만 정권이 농지개혁법으로

구 지주들에게 배정한 채권)과 '건국국채'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한 채권)는 급히 돈이 필요해 팔고자 하는 사람과, 싼값에 이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만나 거래가 활발하였다.

두산그룹 창업자인 박두병은 싸게 사모은 지가채권으로 적산(敵産) 기업인 '소화기린맥주(現 오비맥주)'를, SK그룹 창업자인 최종건은 선경직물 같은 알토란 기업을 불하받았는데 이는 현재의 두산그룹이나 SK그룹을 탄생시킨 토대는 아니었을까.

대한증권의 성공에 자극받아 고려증권, 영남증권, 국제증권, 동양증권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1953년 정전 이후 대한증권협회(現 금융투자협회)를 거래소로 삼아 지가증권과 건국국채는 활발하게 거래되었다. 곧이어 1956년 2월 한국 최초의 거래소인 대한증권거래소(現 한국거래소)가 간판을 내걸었다.

해방이후 원조금을 바탕으로 전후 복구를 마치고 나름 규모 있게 성장하던 한국의 금융과 자본 질서는 1960년 4·19 혁명의 홍역으로 혼란스러워지고 이듬해 5·16 군사 정변으로 금융자본은 관치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기형 성장하게 된다.

김민호 기자(minho215@hanmail.net)

게이트볼 나만의 청춘 스포츠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12월 22일 오후 4시 복지관 건강100세 샵터 게이트볼장에서 홍천군 노인복지관장배 게이트볼 리그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종 경기 팀은 복지관, 연봉, 풍암, 상화계, 중화계, 굴운, 오안, 송화 총 8팀으로 22일 진행된 순위 결정전은 상위팀과 하위팀으로 나눠 진행돼 1위 연봉, 2위 상화계, 공동3위에 노인복지관·풍암 팀이 올랐다.

특히 이날 복지관게이트볼(회장 민경욱) 팀에서 상금 100만 원을 후원해 상장과 함께 전달했으며, 리그전과 순위결정전, 시상식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자신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회의 장이 됐다.

지난 12월 22일에 동료 어르신과 함께 게이트볼 현장을 찾았던 이야기를 잠시 꺼내본다. 12월 초순에는 그럭저럭 시간가는 줄 모르고 2·3일마



다 한번씩 3게임씩 운동을 하고 헤어졌다. 하지만 12월 중순이 지나면서 매서운 겨울 날씨로 급변했으며 눈도 평평 내리고 온 마을이 하얗게 뒤덮혔다. 기온이 영하 5도에서 영하 12도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180평에 가까운 게이트볼 경기장은 난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추위가 물씬 풍겼다. 손끝이 시러오고 온 몸으로 매서운 추위가

강하게 느껴졌다. 나의 타격 순간이 찾아왔다. 스틱에서 탁하고 튕겨져 나가는 공이 목표했던 공에 경쾌한 음을 내며 터치했을 때 손끝의 차가움이 조금씩 사라졌다. 이것이 바로 게이트볼을 치는 매력이고 운동을 지속하는 나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손끝으로 터치한 공을 잡고서 라인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에 게이트볼의 쩐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오늘도 모처럼만에 게이트볼장에 들어서 회원들과 함께 한바탕 웃고나니 온 몸이 가벼워졌다. 우리 회원들은 승자와 패자를 가리기보다는 우의를 다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22년의 끝자락에서, 23년의 새해를 맞이하고 게이트볼이 노년스포츠에 관심 있는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

김동식 기자(dong-sik@hanmail.net)

설 명절맞이

손주들과 오물락 조물락



벌써 새해 1월이 다 가고 어느새 2월에 접어들었다. 설 명절은 대체로 2월에 담겨져 있었는데 올 해는 1월에 설 명절이 담겨져 있었다.

무겁게 설 명절이라는 대 명절을 품고 있었던 1월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단란하고 사랑이 넘치는 3대가 살고 있는 대가족의 가정을 들여다본다. 요즈음 보기드문 가족 구성이다. 더구나 조부모와 손주들의 오순도순 삶 속에서 부비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가 좋다.

이 가족은 조부모를 비롯하여 부모들이 아이들의 바른 교육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조부모님과 함께 살면 유익한 점도 많다.

이처럼 대가족의 장점은 조부모님과 친척들 간에 친근하게 지내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과 예의범절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친척간의 대화와 협동을 통해 현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강한 가족애를 얻을 수 있다.

행복한 기운은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영양분이 되어준다. 아이는 가족 안에서 행복을 느껴야 사회 속에서도 안정된 기분을 가질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어느 주말 오후에 하교한 손주 녀석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었다.

햇볕이 잘 드는 거실에 앉아서 웃음소리가 터지면서 재잘대는 아이들의 반짝거리는 머리카락에 눈이 부시다.

어찌할 수 없이 사랑스러운 갓난아기, 아장아장 걸음마 한 발짝의 조마조마함에 가슴 졸이게 만들던 손주들이 어느새 자라서 초등학교 졸업생이고, 또 한 녀석은 고학년이 되었다. 막내인 여자 아이는 올 해 초등학교 입학할 한다.

물 불 안가리고 만드는 맹목적인 매혹을 자신도 모르게 뿜어대는 존재, 아무리 짜증나고 고단해도 멈출 수 없는 애정과 목메임으로 움아매는 존재, 그건 손주들이다.

아이들의 대화 속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끼어들어 재미있게 들어주며 툭 툭 질문을 던진다.

질문에 아이들은 까르르 넘어간다.

조부모는 그것이 너무 재미있다.

아이들의 대화 속에 들어가 보는 것도 엄청 재미있다. 아이들과 놀다보니 금쪽같은 시간이 마구 흐르고 있었다. 어느새 저녁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다.

할머니 : 애들아~ 오늘 할머니와 수제비를 만

들어 볼까?

아이들은 동시에 함성을 지른다.

“우와~ 쫄아 쫄아 함무니~ 쫄아요~”

학교에서 돌아와 당연히 씻은 손이지만 아이들은 다시 또 손을 먼저 씻으려고 후다닥 욕실로 뛰어 들어간다.

서로 먼저 씻으려고 난리법석이다.

올 해 5학년인 손녀가 제일 먼저 뛰어나와

“함무이~ 반죽 주세요~”

손자가 두번째 막내가 세번째로 뛰어 나와서 할머니 앞에 쭈~욱 섰다. 모두 다 팔을 뚱뚱 걷어붙이고 준비태세를 하고 있다.

할머니 : ㅎㅎ 반죽이 아직 안됐어.

밀가루에 물을 붓고 섞으려는데 손주 녀석들은 그것도 자신들이 해 보고 싶어 한다.

그런데 반죽을 아이들에게 맡겼다가는 엉망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할머니 : 음~ 반죽은 할머니가 하고 수제비는 너네들이 떼고 그러면 어때?

손주들 : 흥~ 반죽도 우리가 해 보고 싶은뎡~

할머니 : 섞는 것은 너네들이 조금 더 크면 하게 해 줄게.

밀가루에 물을 부어 섞고 대충 덩어리로 뭉쳐서 치대라고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손주들은 참새처럼 재잘 거리면서 고사리 손으로 신나게 오물락 조물락 잘도 주무른다.

손주들이 치댄 수제비 반죽들을 모아 한데 뭉쳐서 할머니가 다시 치대고 마무리를 해서 다시 또 덩어리로 떼서 손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할머니가 이젠 수제비를 떼도 된다고 하시니 아이들은 너무나 신나 했다.

아이들은 너무나 열심히 오물락 조물락 수제비를 떼기 시작 한다.

손주들은 수제비를 떼고 할머니는 연신 떨치 다시물이 끓고 있는 냄비에 넣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수제비 반죽은 냄비로 다 들어가서 보글보글 끓기 시작 한다.

아이들이 아직은 매운 음식들을 힘들어 한다.

갓은 양념을 하되 매운 고추나 매운 고춧가루는 멀리하고 덜 매운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서 맛있게 양념장을 만들었다. 텃밭에서 기른 무, 배추와 양념들을 넣어서 담근 김장 김치가 아주 맛있게 익었다.

김치와 수제비를 상차림 해서 손주들과 식구들이 둘러앉았다.

올 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막내 손녀가 “이것

봐!! 이거, 이거 내가 만든거지? 내가 만들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 하며 아주 좋아한다.

그런데 막내 손녀가 떼 수제비는 유난히 두껍고 울퉁불퉁 하다. 그래도 자신이 수제비를 뜯었다는 것에 기분이 좋다고 한다.

어떤 녀석은 수제비를 뺐는데 마치 우주선 모양이다. 한바탕 깔깔대고 뒤집어지게 웃는다.

수제비마다 모양이 시시각각 이다.

수제비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아서 냄비 속에서 끓을 때 얇은 것은 먼저 익어 버렸다. 두꺼운 것은 아직 익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두꺼운 것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얇은 것은 다 불어버렸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만든 것이어서 더 맛있다고 한다.

막내 손녀뿐 아니라 세 녀석이 모두 다 자신들의 작품이라서 더욱 맛있게 먹는 것 같다.

뿌듯하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시간은 빛나는 순간들이다.

지치고 힘든 오늘을 버티고 사는 건 우리를 향하여 웃어 주고 사랑해 주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있음이다. 찰지고 웅골진 막내 손녀, 시고도 달콤한 들깨 손녀, 애절하고 가슴절이며 애잔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가녀린 손자, 항상 목에 걸려 있는 손자다.

요즈음은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결혼을 해도 대가족을 좋아 하지 않아 3대가 함께 모여 사는 가정은 거의 없다. 현대인들은 핵가족을 선호한다. 핵가족과 대가족은 장단점이 너무 뚜렷하다.

이경희 기자(kyung-hee@hanmail.net)

사라져가는 풍경들

아늑한 들녘에 퍼지는 쫄 향기를 맡으며 ...



어스름한 새벽이나 노을이 깃드는 저녁녘에 흥천 읍내를 지나 자주 지나다니는 동흥천 나들목에 다다르면 가끔씩 백이동 골짜기에서 흘러 나오는 은은한 쫄 향기가 차 안으로 흘러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겨울에 방 안에서 피우던 화롯불에 밤, 고구마도 구워 먹고 어머니가 인두를 달궈 저고리 옷고름 동정도 눌러 다리던 모습, 그래서 방안에선 항상 은은한 쫄 향이 배어 있던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경주 손곡동 쫄가마터 화로와 인두
(사진_국립문화재연구소)

우리민족이 언제부터 쫄을 사용하였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경주 손곡동 신라시대 유적지를 발굴하다 드러난 여러 기의 쫄가마의 흔적들을 보면 신라시대부터 쫄의 사용이 민간에 널리 보편화 되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쫄의 사용을 단지 연료로의 목적만이 아니고 건강유지와 치유의 수단 등의 민간요법으로도 널리 사용하고 있었음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국내 참쫄 소비량의 80~90% 정도는 중국, 동남아 등 환경규제가 덜한 국가에서 수입하여 물량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며 그 외에 코코넛, 야자 등의 폐기물에 화학적 발화제 등을 첨가하고 압축 성형하여 만들어낸 성형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강원도내에는 원주, 횡성, 흥천 등에 총 17개소의 쫄가마가 남아 있는데 그나마 흥천군에는 화촌면 성산리와 구성포리에 2개소만이 남아 겨우 전통참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흥천참쫄공장 전경

백탄은 둥근 원통형의 참나무원목이 가마에서 구워지고 꺼낸 후 잿가루를 덮어 식히는 과정에서 많은 양이 부스러지며 원형이 손상되어 깨끗한 형태의 좋은 상품성을 가진 제품은 실제 1/3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반면 흑탄은 낮은 온도에서 공정이 이루어지고 중간과정에서 손을 타지 않고 완성되기 때문에 거의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 손실율 면에서 백탄과 차이 나며 이는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어 백탄은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백탄 포장작업

국내에 남아 있는 전통 쫄가마에서는 실내 사용이 가능한 질 좋은 백탄을 위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그 외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흑탄, 목초액 등은 실외용 연료, 탈취제, 기타 산업용 등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가끔 TV에서 방영되는 쫄가마 체험 프로그램을 흥미롭게 지켜보곤 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 보니 화면에서 보듯이 그렇게 낭만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수익성이 보장되는 업종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환경 문제로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 현장에서 일 할 수 있는 작업자의 부족, 참쫄의 재료로 쓰이는 질 좋은 굴참나무의 조달 등 작업외적인 문제들로 지금도 폐업을 고려하는 사업자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쫄을 구울 때 쫄가마 내부는 1,300도까지 올라가 완전히 무균실이 되기도 합니다. 전통 쫄가마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참쫄은 쫄불구이 연료로 사용하고 쫄가마 내부의 잔열을 이용하여 온열욕장(찜질방)으로 활용하는 한국형 온열욕 관광 상품이 몇몇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쫄이 가지고 있는 철, 마그네슘, 칼슘 등 소량의 미네랄 성분을 농업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쫄을 가루로 만들어 일정량을 토양에 살포하면 쫄이 가지고 있는 미세한 기공들은 유익한 미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여기서 증식한 미생물은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통기성 보습성 등을 좋게 하여 토양의 성상을 좋게 합니다.

또 쫄의 생산 시 발생하는 연기를 액화하여 얻어지는 목초액도 천연 살충제로 활용하여 병충해를 방지하는 농사기법도 꾸준히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쫄의 성분을 활용하여 산업용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사용처를 연구 발전시키고 있는 사례들도 자주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쫄가마 내부

쫄의 이러한 성분들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면 다방면의 쓰임새를 가지고 있을 팔방미인 쫄이 단지 민원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기피업종으로 치부되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서서히 사라져 간다는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발전적인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 소중한 참쫄가마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존하여 오랫동안 옛 추억을 상기하며 은은한 쫄 향기를 풍기는 목가적인 시골풍경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호관기자(hokwan_park@daum.net)

기사내용과 사진은 백이동길 흥천참쫄공장의 도움으로 작성되었습니다.